

태그 알. 네 모든것을 한눈에 까발려 주마!



태그 클라우드 전체보기 페이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상단 메뉴 "Tags"를 클릭하면 우측 그림에서 보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째 그동안 작성한 포스트에 태그를 달고 있는데 만만찮은 작업이에요. 처음에는 핵심 키워드들로만 구성했는데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태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결될만한 키워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전부 입력하고 있습니다. 중복태그 및 유사태그의 생성이 태그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인기 태그를 무시한 소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태그는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콘텐츠로 다가가기 위한 지름길을 제공합니다. 특히 관련된 콘텐츠 조회를 유도하는 역할에 충실하며 결과적으로 방문객을 오래 머무르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통계자료는 조만간에 정리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태그'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전체 태그가 표시되는 페이지를 만들고보니 블로그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를 단번에 파악할 수가 있더군요. 블로거라면 태그입력은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할 작업과정인듯합니다. 나중에 태그 없는 블로그는 폐쇄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한눈에 많은 것을 까발려(?)주는 엄청난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 태그 전체보기 페이지 추가방법은 테스트를 거쳐 소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